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이 공부해야!

아침 저녁 자고 깨는 것도 실감나지만 우리가 흩어졌다가 모이는 것도 실감나죠.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이는 것도 일종의, 우주 자체도 그렇게 흩어졌다가 모이고,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작용을 쉴 사이 없이 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생활 속에서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못하면서 살아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 죽을 날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죽을 날은 생각지 않죠.

요새 난 '여러분이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부자유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딱해서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창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살 속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구속을 받고 살고 있나.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체 천차만별의 사생들, 그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나? 천차만별의 사생들이 모두 자기가 살아온 습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연어인가, 은어인가? 하여튼 왜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떠나서 세상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는, 자기 모습을 형성해 놓고 자기는 없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쉴 사이 없이 하게 될까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 먹히고 먹고 살아온 그 습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습이 쉴 사이 없이 반복되는 반면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대로만 따라갈까요? 그대로 따라가더라도 우리 마음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발전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도 발전이 생기고, 또는 발전이 생기는 반면에 창조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면 물리가 터지고, 물리가 터지면 지혜로워지죠,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주 천지를 곳곳마다 심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넓게 봐야 하나? 첫째,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실만 알아도 그것은 아주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알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과거 · 현재 · 미래를 한 찰나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 삼천 년 전을 지금 현재에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다. 미래를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다. 이것은 못을 박아서 미래의 어느 때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멀고 가까움이 없이, 또 가고 옴이 없이 자유롭게 가고 옴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도력이 어디서 생기나. 마음이 폭넓고, 폭넓은 그 무리들이 사는 그 가운데에 바로 나도 더불어 함께 한마음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형성시킨 놈이 어떤 놈인가. 내가 나를 형성시켜서 지금 끌고 다니는데, 물론 혼자는 할 수 없어서 어느 부부를 등장시켜서, 정자 난자를 빌리고 몸을 빌려서 형성시키는 겁니다. 벌레가 나무를 의지해서 자기 몸뚱이를 붙들어매서 진화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기대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해 드리는 말이,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데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겠다, 홀로 앉아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주 어긋나는 일이죠.

어떤 선지식께 제자가 이런 말을 했다죠. "분주하고 시끄러워서 저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을 묻고 살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 곧바로 가되 길을 딛지 말고, 남이 짜 준 옷을 입지 말고, 남이 농사지은 밥을 먹지 말고, 남의 물을 먹지 말고 남의 땅에다가 오줌도 누지 말라. 그리고 남이 농사지어서 지붕을 만든 건데 그 지붕 밑에서 어떻게 자느냐! 남들이 다 해 놓은 데서 너도 더불어 같이 살면서, 더불어 같이 사는 너의 모습과 너의 생명과 너의 아픔을 다 버리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느냐!"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그때서야 알고 '어허! 이게 모두가 한도량이구나!' 하고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이 공부를 했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걸 말로 꼬집어서 어떻게 다 하리까? 말로 해서 마음이 승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 꼬집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비밀문서라는 것이 정신세계의 비밀이니까요. 우리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도 비밀이거든요. 예전에는 모습을 가지고 축지법을 썼지만 지금 시점에는 정신계의 축지법이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정신을 잡아먹느냐, 정신을 뺏기느냐 하는 문제들의 싸움이라고요. 지금 구순히 사는 것 같지만 전체가 전부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싸움을 안 하고 어떻게 평등하게 공법으로 대치를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상 아님이 없는데 모든 거를 밟고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그래서 삼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뜻을 일러 주셨고 지금까지도 일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리를 깨달았다 해도 각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리를 자세히 들으세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많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도 두드러지지 않고, 여러 부처님들의 마음이 여기를 통해서 바닷물 내놓듯이 다 내놔져도 줄지 않아요.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가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상 아님이 없는데
모든 것을 밟고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관습에 인연줄에 매달려서 그냥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자식이다 할지라도 자식들의, 부부의 몸을 붙들고 매달리지 말고, 만약에 그 마음을 들 아니게 놓고 슬기롭게 굴린다면 몸은 저절로 붙들어지고, 사랑은 저절로 화(化)해서 자비의 정이 되어서 펠래야 뗄 수 없이 이어져 가면서 더불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떡하면 요것을 요리를 잘해서 잘 먹여서 그 맛을 알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도무지 쉽지가 않고 땀이 부쩍부쩍 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구에 붙어서 사는 사람 벌레는 화해서 한 발을 떼어 놔야만이 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유자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평등봉에 같이 한자리를 할 수 있어서 여래 자리라고 하죠.

우리가 옷을 벗었다고 해서, 이 모습을 벗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으면 자기 차원대로, 아니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요, 배를 갖다가 놓고, 같은 배인데도 크고 작은 것을 가리려고 기계에 넣고선 굴러 떨어지게 합디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굴러 떨어지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은 배건만 크고 작은 걸 가려 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중간 것은 중간 것대로 놓고 팝디다.

그러니 천차만별의 그 모습들을 죄들 각각 놓고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습, 그 습으로 인해서 오는 인과, 인연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업이 되는 거죠. 이게 악업이 되느냐 선업이 되느냐. 사랑을 하다가도 어떠한 문제 때문에 헤어지면 악업이 되죠. 선업이 그냥 순간에 악업이 돼 버리고 말죠.

그러니 악업 선업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입력이 된 데다가 되 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된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인식이 되고 동감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말려서 그것이 습성으로 돼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모두 살아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믿고 되놔라, 제 나무는 제 나무뿌리를 믿어야 되느니라." 했습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수분과 에너지를 흡수해서 모두 올려보낼 수 있어서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남의 뿌리 남의 나무를 믿고 잘살게 해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그건 기복이며 그건 이익이 하나도 가지 않는 것이며 공덕이 될 수가 없죠.

천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를, 하나로 묶여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같이 살고, 같이 말과 마음이 이어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여래라고 하죠. 그리고 공덕이라고 하고요.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관여가 된 사람들은 전부 모여야 해결이 돼요. 모이지 않고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모여서 공동 분담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우리가 공(空)해서 전체가 다 이어져서 돌아가니까, 내 주인을 근본으로 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해서 모두 보폴어져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몸뚱이 속의 모든 중생들이 의식들을 꼭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뚱이가 배라면 내 마음의 선장이 그 자생중생들을 다 태워 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배에 탄 중생들은 다 선장의 마음을 따르게끔 돼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마음의 선장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과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게 "어휴! 저놈을 죽였으면 좋겠다." 하면 이 안에서도 '저놈 죽였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쪽으로 음파가 그냥 가 버려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냥 더 마음이 부풀어지면서 '두고 보자.' 하게 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의식들이 내 마음 채찍의 다스림에 따라 나가서 마음도 조절하는데, 나쁘게 조절하느냐, 평화스럽고 아주 좋게 해결사로서 조절을 하느냐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천차만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악업 선업의 천차만별의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으음,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놓아야죠. 그러면 통신이 돼서 다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작용을 해 주거든요. 오늘은 요런 자세한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마음을 넓게 가지면서 거기다가 놓으세요. 만약에 꿈을 꾸었다든가, 상대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잘못돼 돌아갈 기미가 보인다든가, 나를 그냥 꼭두각시로 만든다든가, 또는 적대시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기미를 알게 되면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가 있잖아! 그 마음들과 둘이 아니게 내 마음으로 쓸 수 있게끔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모든 것을, 신호를 거기다 맡겨 놓을 때에, 이건 의학적이기도 한데, 대뇌를 통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뇌를 통하고 중뇌에서 결정을 지어요. 결정을 짓게 되면 허달이 돼요. 사대로 통신이 돼요. 통신이 돼서 제각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그때는 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몸뚱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가지각색의 모습을 해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업식의 굴레에서 그냥 그대로, 컴퓨터에 넣으면 그대로 나오듯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이 아주 기정사실로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뺄래야 뺄 수 없고, 끼울래야 끼울 수 없이 그대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계성 · 세균성 · 윤회성 · 업보성 · 인과성 이 모두가 거기에 속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 몸 안에 들어 있어요. 부인 못할 겁니다, 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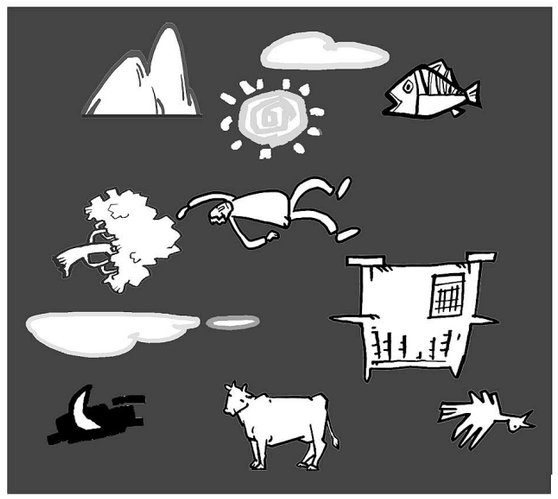
그래서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고,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나로부터 업식이 있는 거니까 내 탓으로 돌리라고 하는 거죠. 묘한 거는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인과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 업보성 또는 영계성까지도 모두 종합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입력이 된 대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한치도 벗어날 수 없게 녹음이 돼서, 입력이 돼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입력된 것을 어떡하면 없앨 수 있을까? 안과 밖으로 다 뜁니다. 그래서 내면의 절차가 다 잘되어 있어야 외부의 절차가 다 잘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면 새지 않느냐.'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 내 안에 든 모든 생명체들의 의식이 바로 내 주인이자 내 하인이고, 내 육체가 또 그네들의 주인이자 바로 심부름꾼이고, 관리인이자 집합소가 되죠.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거지 개별적인 혼자가 없어요. 모두들 살아나가는 데 내가 했고, 내가 살고, 내 것이라고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것이 없다면 바로 욕심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벌어 놨다 하면 그게 조금만 없어져도 그냥 안타깝고 그렇지만, 더불어 내 거다, 더불어 한마음의 거다 한다면 가지고 다녀도 무겁지도 않고요, 도둑맞을 일도 없고요. 또 생짜배기로 돈이 나가지도 않을 거고요. 모두의 돈이라고 그러는데, 더불어 같이 공유하는 돈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짜배기로 나갑니까? 그러나 내 거라고 그런다면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이놈의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 오늘은요,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질문들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다 보면 세세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도요, 전부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놨고, 전부 상대를 놓고 하고 있죠. 참, 그것도 기적이지. 어떻게 그렇게 상대를 놓고 빌게끔, 기도하게끔 만들어 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자기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그 사실을 안다면, 이건 누가 대신 해 줄 수가 없어요. 집 안에 들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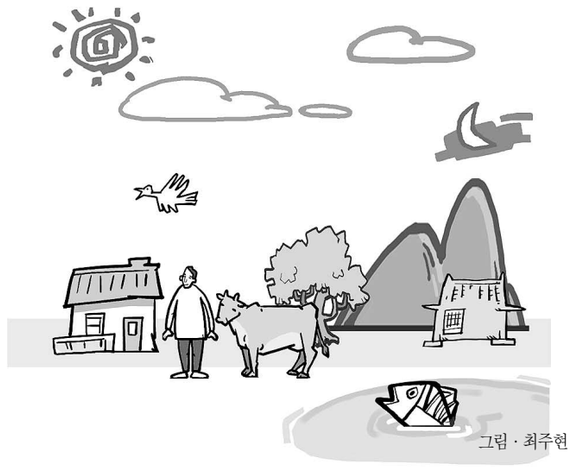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가져야

☞29면에서 계속

어가서도 말 못할 일이 생기고,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다 그렇지요. 혼자 먼 산 보고 울어야만 하고, 자기 혼자 새겨야 하고, 혼자 참아야 하는 일들이 건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올 때도 혼자 왔기 때문에 갈 때도 혼자 가야죠.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건, 혼자 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갈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자기를 다시 형성시켜 놓고 자기는 옷을 벗듯이 그냥 벗어 버리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요.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바로 저녁이면 잠자고 아침이면 깨고, 이러는 거와 같은 겁니다. 말씀하세요.

▲질문자1: 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견성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달마 조사 『혈맥론(血脈論)』에 의하면, 부처를 찾고자 하면 반드시 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염불을 하거나 또 경을 외우거나 계를 지켜도 별로 이익이 없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경을 외우면 총명을 얻고, 계를 지키면 천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고, 보시를 하면 우리가 복된 과보를 받되 부처는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수행하는 불자들이 반드시 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고 모양도 빛깔도 없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그 작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걸로 알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인이 마음이고, 또 저를 지금까지 형성시켜 온 것이 그 마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수행하는 자체가 견성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어떠한 다른 경계가 있어서 말씀을 하신 건지 그 점이 상당히 궁금해서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렇게 잘 알면 성불을 오히려 못하죠. 잘 아는 것이 앞을 막아서요. 또 몰라도 안 되고요.

▲질문자1: 글쎄, 아리송해서요.

▲스님: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움쭉거리게 된 것은 자기가 과거에 살던 자기이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과거 자기는 '부(父)'가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 형성된 자기는 '자(子)'가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부가 저절로 되고, 생각을 냈다 하면 자가 되는 거죠. 그냥 가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부가 되고, 생각을 냈다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자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가 부로 하나가 되고, 또 생각을 냈다 하면 부가 자로 와서 하나가 되니 부다 자다 할 것도 없는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진실히 믿고 잘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경을 보든 안 보든, 즉 말하자면 경을 보면 '아, 이건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따로가 되죠. 따로가 돼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삼천 년 전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든 현재에 말씀하신 거든 '내'가 없으면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작용하는 나를 누가 형성시켰는가. 그 바로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으니까, 그 형성시킨 자기란 놈이 바로 부가 되는 겁니다. 참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형성된 자의 마음은 바로 부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꼭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나무는 제 뿌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흙이 덮여서 그 나무가 제 뿌리를 못 보게 된 것을 무명이 덮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바로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근본 뿌리를 자기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작용하는 일체를 나오는 자리에다가 되맡겨 놓으면, 바로 입력이 된 데다가 다시 맡겨 놓으면 과거의 입력이 없어지고 새 물로 대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입력이 되죠.

▲질문자1: 스님! 두 번째로, 제가 선원에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느낀 점과 체험한 것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원에 나온 지가 5년 되거든요.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인공을 믿고 오로지 그 자리에다 맡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 스님 법문에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참 공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욕심도 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그냥 음란한 생각도 나고 어리석은 마음도 나오고 이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 공부는 제가 사람 몸 받았을 때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생각이 점점점점 적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당히 편안한 상태가 됐거든요. 제가 선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치아 치료를 위해서 치과에만 몇 번 갔지, 몸이 아프거나 그래 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원에 나오기 시작해서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제 엉덩이에 밤알만한 종기가 10개 이상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공부시키는 기회구나.' 하고서 밀어붙였어요. '주인공! 당신 몸이니까 당신이 낫게 해야지.' 하고 병원에도 안 가고요. 그전 같으면 아마 병원에 가서 마이신을 맞는다, 뭐 한다 난리를 쳤을 텐데 그 자리에다 맡겨 놓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종기가 그렇게 크면서도 아픔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10여 일이 지나더니 그냥 스스로 나았거든요. 그 뒤로는 몸이 어디 좀 아프거나 하면 그냥 주인공 자리에다가 맡기면 스스로 낫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좋다는 것을 저는 아주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습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가끔 삼독심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요. 그럴 때는 혼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5년 동안 네가 뭘 공부했느냐?' 이런 자책감도 가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주인공 자리에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5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 그때하고 지금의 너하고 얼마나 다르냐. 그러면 내가 공부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하면서 제 몸을 밝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올바른 법을 제가 누구 말대로 쉽게, 소 고삐를 올바로 잡고 끌고 가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스님: 올바르게 이끌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습성이 발광을 하고 나올 때에 왜 거슬립니까? 비죽이 한번 웃어 보세요. '허! 너….' 하고 그 어떠한 생각이 나오든지 거기서 나오는 줄 알면 그냥 웃어 버릴 수가 있고 또 '나는 그렇게 해도 속지 않아! 주인공에서 화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습성들은 화하고 변해서 모습을 바꿔 가지고 자꾸 들러붙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꾸 건이 생기죠. 그런 거를 가지고 거기에 끄달리면 어떡합니까? 끄달리면 속는 거지. 예를 들어서 팥죽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팥죽 솥에 팥죽이 끓는데 방울 방울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한 솥의 죽방울이지. 그러니까 '죽방울은 그 죽 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하는 생각을 하면 비죽이 웃음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될 게 하나도 없죠, 뭐!

▲질문자1: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스님: 예를 들어서 아주 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놈이 일거일동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즉 말하자면, 나는 모든 중생들을 커버하면서 이끌어 가는 어떠한 회사의 중역일 뿐입니다. 그 회사의 건은 그 회사의 주인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 중역이 이끌어 가는 소임을 맡았다고 그래서 회사 전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왜 걱정을 합니까? 나 할 일만 하면 되죠. 그렇게 걱정을 하면 묘법이라는 게 홱 돌아서 바로 구정물이 생기게 돼 있고, 또 한생각이 더럽고 깨끗한 거를 떠난 청정이라면 그냥 한순간에 깨끗한 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이다 10년이다, 또는 1년이다 몇 달이다 이런 생각도 말고 공부하십시오. 왜냐하면 잘했다 못했다, 내가 부처가 꼭 돼야지 하는 욕심을 갖는다면 정말 부처가 못 됩니다.

▲질문자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 웃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11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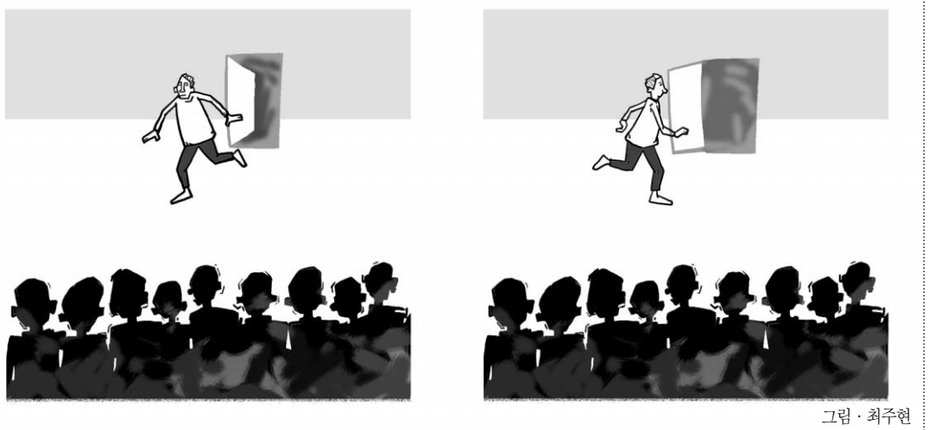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고 상대가 생겼고 업식이 있는 것이니 모든 것을 내탓으로 돌려라!

동희스님 (동희범음회)

범음 특강 공고

모집과목	시 간	강 사
짓소리반	목 14:00-16:00	동희스님 덕림스님
안채비반	금 14:00-16:00	동희스님 선각스님
작 법 반	토 14:00-16:00	동희스님 진성스님

◆접 수 : 서울시 성북구 돈암2동 413-14 (자인사)
☎ 02)921-0973. 017-396-1644
◆약 도 :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출구 아리랑 고개방향 (도보로 5분 거리) 나운규기념공원 옆 4층 (염불원)

개강 12월 1일(목) 짓소리반 13:00
12월 2일(금) 안채비반 13:00
12월 3일(토) 작 법 반 13:00

제4기 영남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본 연구 보존회에서는 영남 범음 · 범패에 뜻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및 축원 송주 등.
● 중급과정 : 신중작법 ,대령관욕, 각단 청, 상주권공, 각종 시식, 다비식,점안의식 등.
● 작 법 반 : 바라 작법, 승무 작법 등.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수시접수함.
제4기 개강일 2005년 11월 28일 (목) 오후 3시 강의일 : 매주 월 · 목(오후 3시)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회 소정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 보존회는 초 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 사찰 창건 및 운영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교육원 위치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주공아파트 상가지하
● 문의전화 : 055)745-8419, 011-867-8419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원장 한 파 강사 원 명 합장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수련일시 : 2005년 11월 22일 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5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5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침대 · 황토손 · 황토불판

황토는 오랜 세월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규소성 광물로서 흔히 '태양에너지 저장고'라고 불립니다. 표면이 넓은 벌집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구멍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활동을 자극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황토손 · 황토불판은 살아있는 생명체라 하여 엄청난 약성을 가진 무병장수의 흙으로 사용되어온 황토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은 우리집 건강 지킴이입니다.

사찰이나 가정에 황토방을 시공해 드립니다.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 위에 올려놓은 모습

황토의 탁월한 효능
1. 정화작용 및 해독제 역할
2. 인체의 순환작용
3. 통증의 완화작용
4. 신진대사 촉진

황토침대에서 숙면을 취하면 기능이 당뇨나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황토불판에서 일품 요리의 맛을 느껴 보십시오.

황토불판에서 고기를 굽는 모습

● 제품 가격 : · 황 토 침 대 (1인용) : 1,500,000원 · 황토손 + 황토수건 : 20,000원 · 황토불판 + 황토쇠판 : 25,000원 · 황토손 + 황토불판 셋트 : 45,000원
● 입금 계좌번호 : · 농 협 : 178990-56-003521 (이점숙) · 대구은행 : 023-07-473126-001 (이점숙)
● 구입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543-1 중앙시장 108호 대구 · 경북지사장
011-817-9364 · 017-804-0215 · 053-585-9364 이노사나 합장